

6·25전쟁 이전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성격에 대한 고찰

장성진

육군사관학교 전사학 전임강사, 군사전략 전공
morning6@hanmail.net

- I. 머리말
- II. 만주의 정세와 조선인 부대의 입북
- III. 입북 부대의 전투 활동과 교육
- IV. 맺음말

I. 머리말

동북아 국제질서는 전쟁을 매개로 변화되어왔다.¹⁾ 동북아에서도 한반도와 만주의 정세는 역사적으로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제의 '만선(滿鮮)사관'은 이를 단적으로 드러냈지만²⁾, 만주의 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오류를 범하였다. 실제로 일제의 패망 이후 국공내전과 북한의 형성은 모두 만주의 정세를 변화시켰고, 만주 정세의 변화는 다시 중공과 북한의 국가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어, 국공내전 기간에 만주는 중공군이 국민당과 전쟁을 전개하기에 매우 유리한 지역이었다.³⁾ 이에 소련은 만주의 중공을 크게 도왔고, 북한은 중공의 유력한 후방근거지 역할을 했다. 그 과정에서 당시 만주 조선인은 제2차 국공내전의 요심 전역의 승리에 기여하였고, 이후 1949-1950년의 만주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북한군 군사력 증강과 6·25전쟁 초기 전투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였다. 결국 북한 체제 형성과 북한군 건설에 만주의 영향력은 지대하였고, 그 중심에 만주 조선인 부대가 있었다.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중요성에 비해 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에 대한 관심은 6·25전쟁의 원인, 북한 체제의 수립, 그리고 전투 수행의 측면에서 부각되었다. 먼저 전쟁의 원인 측면에서 만주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중공과 북한의 협조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물이 되었다. 그리고 체제 수립에는 북한군의 이질적 요소로서 연안파와 조선의용군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며, 전투 수행에는 국공내전의 전투 경험으로 강력한 부대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 관련 자료가 부족한 한계에 기인한다. 하지만 새롭게 발간된 공간 문헌과 회고록을 통해 만주 조선인 부대의 성격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었다.

먼저 전쟁의 원인 측면에서 기존 연구는 만주 조선인의 입북은 중공과 북한의 협조관계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휘팅이

1)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일조각, 2006), 6쪽.

2) 만선사관은 20세기 초 일본 학자들이 주장한 식민사관의 일종으로, 만주와 조선의 역사는 하나이며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는 만주에 종속적임을 그 내용으로 한다.

3) 염인호, 『또 하나의 한국전쟁』(역사비평사, 2010), 684쪽.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의용군의 입북이 6·25전쟁의 계획과 준비에 중공이 긴밀하게 참여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니다.⁴⁾ 또한 입북 배경은 중공 지도부에 의한 파병이었다는 ‘파병설’과 만주 조선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선과 중공이 공동 개전했다는 ‘밀입북설’, 조선인 자신들의 조국으로의 귀환이었다는 ‘귀환설’ 등이 제기되었다.⁵⁾ 최근에는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여 중공의 가장 급선무는 경제복구였고, 경제복구를 위한 잉여 문제 처리(감군)를 위한 산물로 분석되었다.⁶⁾ 결국 만주 조선인의 입북은 국제정치적 맥락과 개인의 희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수립 측면에서 노동당 및 군에서 연안파와 조선의용군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6·25전쟁 이전 북한 체제는 연립정권이었으며, 북한군은 동질적 성격이 아닌 이질적 성격이 혼합된 군대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즉, 북한 체제는 해방 이후 6·25전쟁 기간에는 파벌의 경쟁과 패권적 연합의 시기였고, 전쟁 이후 연안파들이 당·정·군의 요직을 차지하였으나 1958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정치적 숙청으로 김일성 체제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다.⁷⁾ 그리고 북한군은 소련군을 모델로 한 ‘정규군’형 군대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해방전의 경험을 공유한 조선의용군의 ‘인민전쟁’형 군대와 남로당의 ‘유격전’형 군대가 혼재된 이질적 부대였다는 것이다.⁸⁾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1947년에 이미 김일성이 북한의 당·정·군을 장악하여 체제의 원형을 갖추었으며⁹⁾, 북한군 역시 초기부터 김일성의 강력한 영향력하에 있었다고 볼 수

4) 알렌 S. 휘팅,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China Crosses The Yalu)』(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65쪽.

5) 와다 하루키는 조선인 부대의 입북이 중국공산당 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른 행동, 즉 파병이라고 보았다. 김중생은 조선족 부대의 입북은 김일성의 요청으로 중국 최고 당국자가 입북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비밀로 실행한 밀입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염인호는 회고록과 당시 신문 등을 분석하여 개인의 희망으로 조국으로 귀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와다 하루키, 『한국전쟁』(창작과 비평사, 1999), 93쪽;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명지출판사, 2000), 267쪽; 염인호, 앞의 책(2010), 687쪽.

6) 이재훈, 「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부대의 ‘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2005) 참조; 정병일, 「북·중 관계에 미친 연안파의 위상 재조명: 정치·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8집 2호(2010), 287-288쪽.

7) 백학순,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한울, 2010);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선인, 2005); 김중생, 앞의 책, 268쪽.

8) 서동만, 위의 책, 259-262쪽.

9)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선인, 2003), 31쪽.

있다. 따라서 만주 조선인 부대에 대한 김일성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으며, 그들이 북한군에 이질적인 요소였는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전투 수행의 측면에서 입북 부대의 전투력은 강한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리고 중공의 한반도 전략과 상관없이 입북 부대의 전투력은 북한 전투력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인의 입북은 남북한 군사력의 불균형을 조성하여 김일성의 남침의지를 고양시켰다.¹⁰⁾ 1950년 중반 북한군 병력 14만 6,680명 중에서 입북 부대의 총수는 6만 9,200명이었고¹¹⁾, 제1제대의 21개 연대 중 47%인 10개 연대가 입북 부대였다.¹²⁾ 또한 전시(1951년 7월) 북한군 장성편제 중 50%가 입북 부대 장교였다.¹³⁾ 이와 같은 입북 부대의 규모에 대한 강조는 그들의 전투력에 대한 과대평가로 이어졌다. 단적으로 장준익은 북한군 제1, 2, 3, 4사단의 전투력을 '1'로 평가할 때 입북 부대는 '1.5'로, 예비사단인 제10, 13, 15사단은 '0.5'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작전 계획 시 입북 부대를 주공 부대로 운용하지 않은 이유는 김일성이 연안파를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¹⁴⁾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부 입북 부대는 기본적인 정규전 교리를 받지 않은 취약한 부대였음을 밝혔다.¹⁵⁾ 따라서 입북 부대가 중공의 잉여병력 혹은 정규전 교육과 전투 경험이 없는 취약한 부대였는지, 국공내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강력한 전투 부대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요망된다.

이 글에서는 김중생, 최강, 정현수 등의 회고록(증언록)과 최근 연구를 통해¹⁶⁾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성격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와 만주 정세의 상관관계, 그리고 중공과 북한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만주

10)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남북 군사력 불균형』(한국학술정보, 2007), 174-180쪽;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서문당, 1991), 399쪽; 로이 E. 애플만,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육군본부, 1963), 18쪽, 24쪽.

11) 데이빗 쉰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국의 6·25전쟁 참전』(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41쪽; 김중생은 5만 5,000명에서 6만 명으로 보았다. 김중생, 앞의 책, 159쪽.

12) 김중생, 위의 책, 173쪽. 2제대는 38경비여단을 승격한 7·8·9사단이고, 제3제대는 민청훈련소로 편성한 10·13·15사단이다.

13) 김중생, 위의 책, 241쪽.

14) 장준익, 앞의 책, 464-468쪽.

15) 염인호, 앞의 책(2010), 483쪽.

16) 입북 부대의 공간 문헌이 없는 가운데 이들의 증언록은 입북 부대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김중생, 앞의 책; 최강, 『조선의용군사』(연변인민출판사, 2006);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선인, 2006); 염인호, 앞의 책(2010) 참조.

조선인 부대에 대한 김일성의 영향력과 함께 만주 조선인 입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군사적 측면에서는 1945년 전후 입북 부대의 전투 활동과 교육에 대한 실재를 파악하여 그들의 전투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전면전 상황을 가정한 정규전에 대한 전투 경험과 정규전 교리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주목하겠다. 이 글을 통해 입북 부대는 중공의 적극적인 후원에 의한 혈맹의 성격이 아니라 각 국가 간 이해관계의 결과였으며, 만주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북한군 내부에서의 이질적 요소가 아니라 북한군의 동질적 성격으로 작용하였음을 밝히고, 또한 입북 부대의 전장 경험에 따른 과대평가에서 벗어나 실제 어떻게 훈련하고 싸웠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만주의 정세와 조선인 부대의 입북

이 장에서는 만주 조선인 부대의 입북이 중공과 북한의 혈맹관계의 상징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맥락과 개인의 희망에 따른 결과물이었으며, 당시 만주의 정세 변화에 따라 어떻게 김일성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입북한 만주 조선인 부대가 북한군과 동질적 성격을 지닌 부대였음을 밝혀나가겠다.

1. 만주의 정세 변화와 김일성의 영향력

일본 관동군이 붕괴되면서 만주 지역은 치안공백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새로운 치안조직들이 건립되었다. 국민당과 한국독립당 모두 만주 지역을 자신의 영역에 두고자 하였다. 예를 들어, 한독당은 만주에서 군대를 창설하고, 간부를 양성하여 국내 한독당(임시정부)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¹⁷⁾ 때문에 '중경 임시정부는 1945년 10월 말 주요 도시에 한국 광복군 잠편지대를 설치하여 국공내전에 참여하였다.'¹⁸⁾ 마찬가지로 조선의용군이나 소련에서 들어온 동북항일연군도 조선인 무장대오를 흡수 개편했다. 이렇듯 만주 지역에서 조선의용군, 항일연군 그리고

17) 염인호, 앞의 책(2010), 제13장 한국독립당의 만주진출과 남북통일전략, 특히 620쪽.

1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200쪽.

한국독립당 계열 모두 만주 지역을 자신의 영역에 두고자 노력하였다.¹⁹⁾

해방 이후 만주 지역을 제일 먼저 점령한 부대는 소련군이었다. 이에 동북항일연군은 소수였지만 소련군을 따라 1945년 8월 17일부터 만주 각 도시에 나뉘어 진주하였다. 해방 직후 항일연군의 중국인 대원과 일부 조선인 대원 등 330여 명이 만주의 11개 도시로 가서 소련군 위수부 사령관을 맡아 활동했으며, 소련군의 일원이었기에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²⁰⁾ 이는 초기 북한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 위수부에 파견된 동북항일연군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항일연군의 활동으로 1945년 9월 18일 연변의 사회는 크게 변화되었다.²¹⁾ 항일연군 대원인 강신태·김만익은 연길에서, 최명석은 왕청, 박낙권은 용정, 최시영은 화룡현에서 활동했고, 이들은 제88여단장 후보중의 지시를 받으며 연변의 사회운동을 재촉하였다. 항일연군 계열이 주도하고 있던 중공 연변위원회는 민맹을 통해 인민정권 수립을 준비하는 한편, 민맹을 통해 무장력을 확대시켜나갔다.²²⁾ 이와 같은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은 김일성의 영향력으로 이어졌다.

만주 지역에서 김일성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다고 볼 수 있다. 목단강성 조선인들이 창간한 『인민신보』에 의하면 ‘청년장군 김일성 전기’를 12차례 연재했으며, 이는 북만주 조선인사회에서 진행된 김일성 숭배의 실상을 보여준다.²³⁾ 또한 중국 북만 일대에서 김일성과 최현은 군대놀이의 대상이었다.²⁴⁾ 특히 일제 패망 이후 목단강 지구에는 유일하게 동북항일연군 대원들만 들어왔으며, 김광협이 중국공산당 목단강지구 위원회와 동북인민군 목단강지구 사령부를 조직하였기 때문에 목단강 조선인들은 항일연군 조선인 대원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²⁵⁾ 이와 같이 만주 지역에서 김일성 일대기를 연재하고 김일성 사진을 내걸었던 이유는 김일성이 목단강지구 일대에 잘 알려진 인물이고, 당시 항일연군 출신이

19) 염인호, 앞의 책(2010), 30쪽.

20) 위의 책, 40-41쪽.

21) 위의 책, 176쪽.

22) 위의 책, 177쪽.

23) 위의 책, 33쪽. 당시 연재 내용은 북한 한재덕이 해방 직후 『평양민보』 등에 게재한 것을 전재한 것이었다. 한재덕, 『김일성 장군 개전기』(평양: 민주조선사, 1948), 68-88쪽, 93-103쪽; 염인호, 위의 책, 331쪽 참조.

24) 정현수 외, 앞의 책, 283쪽.

25) 염인호, 앞의 책(2010), 372-373쪽.

목단강지구 조선인 부대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⁶⁾

김일성만 만주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었다. 1946년 8월 말까지는 김일성 1인만을 앞세우지는 않고 박헌영 역시 등장하고 있다.²⁷⁾ 그런데 1946년 11월 말부터 박헌영은 없어졌으며, 김일성의 초상화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정중앙에 걸리게 된다. 그리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결과물로 최창익은 한설야의 전기를 참고로 한 또 다른 전기 『우리 민족의 영도자 김일성 장군』을 목단강시 내에 판매하였다.²⁸⁾ 김일성의 영향력은 간부들에게도 지대하였다. 단적으로 1947년 5월 5일 평양에서 목단강지구 간부들과 접견한 김일성은 그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하였고, 간부들은 이 ‘말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²⁹⁾ 그리고 중공의 만주 지역 작전에 북한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북한은 중공에 매우 당당해져서 1947년 4월에는 연변 귀속을 요청하였다.³⁰⁾ 불안정한 만주 정세의 변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정세는 안정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다. 또한 이는 북한 지역에서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김일성 우상화와 영향력은 1946년 9월부터 1947년 8월까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김일성의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항일연군 출신인 강신태, 김광협, 후보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항일연군들이 들어와 연변을 포함한 길림성과 목단강성, 그리고 합강성의 조선인들을 하나로 묶어 공동의 정책을 취했다.³¹⁾ 이는 만주관 통일전선 정책으로 만주 내 조선인을 통해 만주 혹은 조선을 통일하는 전력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가 진행된 것이다. 실제로 항일연군 출신들이 만주 지역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살펴보자.

먼저 강신태는 만주 지역에서 무장 부대 창설을 위해 노력하였다.

26) 위의 책, 331-332쪽.

27) 위의 책, 333쪽.

28) 이 글의 특징은 김일성을 철저한 민족주체성을 지닌 위업 있고 천재적인 지도자, 그리고 레닌에게서 따온 조선인민의 ‘수령’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의 책, 345-347쪽.

29) 첫째는 만주에서 반동파(중국국민당)와 싸우는 것이고, 둘째는 반동파(한국독립당 세력)들의 만주 활동을 숙청하는 것이며, 셋째는 만주에서 조국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다. 위의 책, 343쪽.

30) 위의 책, 339쪽.

31) 위의 책, 374쪽.

이로 인해 1945년 9월 말 600여 명의 경비대를 창설할 수 있었다.³²⁾ 당시 강신태가 작성한 문서에 따르면, “반만 항일을 14년간 계속한 동북항일연군의 영웅적 투쟁사를 계승하여 통일 원칙하에서 동북인민군을 건립”하였다.³³⁾ 이렇듯 동북인민군은 항일연군의 정통성을 계승한 부대였다. 이 부대의 임무는 ‘홍군(소련군)이 철퇴한 후 치안확보, 패잔병 소탕, 토비금지’였으며, 향후 이 무장 부대를 훈련시키고 무기 획득을 통해 정규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³⁴⁾ 이와 같이 강신태 주도로 창설된 연변경비대는 규모가 확장되었지만, 향토방위대 혹은 민병의 성격을 탈피하지는 못하였다.³⁵⁾ 이후에도 만주 지역에서 항일연군을 계승한 무장 부대가 계속해서 창설되었고, 향후 이 부대들이 입북 이후 북한군 제5사단과 제12사단의 일부 연대로 편성된다.

김광협을 통해서도 국제정치 역학을 활용하여 연변을 북한 영토에 편입하고자 하였다. 김광협은 당시 강신태와 함께 동만지방에 진주하여 목단강 경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활동하였으며, 1947년경 길림성 지역에서 조선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였다.³⁶⁾ 그는 “김일성의 지시를 몰래 받고 공개적으로 연변을 조선에 획분해달라는 황당한 작론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후 김광협은 조선 건군절을 축하하기 위해 북한에 왔다가 잔류하게 되고, 길림성 정부 주석 겸 길림군구 사령관이었던 후보중의 요청으로 김광협 대신 임춘추가 가게 된다.³⁷⁾ 임춘추도 연변에서 북한 김일성 입장을 반영하여 연변조속자치주 성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임춘추는 “연변은 중국공산당의 식민지”라고 비판하며 영토 귀속을 실천할 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민족대학 설립을 추진하여 김일성대학을 모방한 연변대학을 설립하게 된다. 이 대학은 북한에 필요한 인재와 연변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연변대학을 졸업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다.³⁸⁾

32) 위의 책, 101쪽.

33) 위의 책, 101-102쪽.

34) 위의 책, 102-103쪽.

35) 위의 책, 109쪽.

36) 위의 책, 76쪽.

37) 위의 책, 184쪽.

38) 연변대학 개교식에는 중공기와 북한기가 걸렸고, 김일성 초상화가 마오쩌둥과 스탈린 초상화와 함께 걸렸다. 그리고 교수법, 학교운영체제, 교복, 교재 등도 김일성대학을 모델로 하였으며, 당시 과목 중에서 조선민족 해방투쟁사, 소련공산당사, 조선 역사를

하지만 만주 지역에서 1947년 8월 이후 북한과 김일성의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우세해짐에 따라 조선 통일전선조직은 해체된다. 이로 인해 북한과 김일성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김일성이 아니라 마오쩌둥의 사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1948년 7월 당시 연변을 비롯한 만주 각지에는 조선인 부대가 주둔하고 외형상 조선인 간부들이 많은 직위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중국 공산당이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었다.³⁹⁾ 국공내전 기간 김일성은 동북 민주연군의 부사령관인 주보증을 통해 각종 물자, 인원을 중국공산당에게 지원했지만⁴⁰⁾, 북한 정규군이 강을 넘어 만주내전에 참전할 정도로 혈맹관계는 아니었다.⁴¹⁾ 마오쩌둥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1948년 9월 9일 북한 정부가 수립되자, 만주 조선인들은 축하 행사를 하였고, “조선인 민군공화국 만세! 수상 김일성 장군 만세! 마오쩌둥 주석 만세!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외치며 행사를 마쳤다고 한다.⁴²⁾ 만주 경축행사뿐만 아니라 주덕해 등은 1948년 11월 15일 김일성을 예방하며 북한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맹세를 하였다.⁴³⁾ 이렇듯 해방 초기에 비해 김일성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2. 조선인 부대의 입북과 배경

1946년 훈춘보안대의 입북은 연대 병력 규모의 만주 조선인 부대가 북한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사례이다. 북한을 점령한 소련군이 무장 부대의 입북을 허용하였고, 이후 동북민주연군 지휘부와 중공중앙 동북국의 동의를 통해 입북이 결정되었다. 당시 입북 인원은 훈춘보안단 2,000여 명과 조양천 교도대대 1기생 500명이었으며, 이들은 북한 무장력

설치한 반면 마오쩌둥의 저작이나 중공당사는 없었다고 한다. 위의 책, 235-239쪽.

39) 위의 책, 196쪽.

40) 정현수 외, 앞의 책, 32쪽.

41) 참전했다는 연구로는 브루스 커밍스,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2001), 334-335쪽; 백학순, 「중국내전 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북한군의 파병 및 후방기지 제공」,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1994)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에 대한 반대 견해는 이종석, 『북한-중국관계』(중심, 2000), 69-77쪽;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2쪽; 데이빗 쉰이, 앞의 책, 43쪽이다.

42) 《연변일보》, 1948년 9월 21일자. 해방 직후 연변의 교육출판사에서조차 교과서 사진에 김일성, 마오쩌둥, 스탈린 순으로 실었다고 한다. 염인호, 앞의 책(2010), 190쪽에서 재인용.

43) 《연변일보》, 1948년 12월 1일자. 염인호, 위의 책, 192쪽에서 재인용.

의 기초가 되는 보안간부 훈련소에 배치되었다.⁴⁴⁾ 북한과 소련은 1945년에는 대규모 조선의용군의 입북을 허락하지 않았으면서 1946년에는 왜 이들의 입북을 허락한 것일까? 이는 북한 체제가 김일성 중심으로 안정화되었거나, 이 부대 혹은 지휘관이 김일성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소련이 입북을 보장해주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훈춘보안단의 지휘관은 소련군을 따라 나온 만주 항일연군 출신인 최명석(즉, 최광)이었다.⁴⁵⁾ 그리고 1946년 봄에 김일성은 국가기구, 당 그리고 군에 대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다.⁴⁶⁾ 또한 일부 참전자 회고록에서 보듯이, 1946년 군정대학 간부 1개 영(300여 명)의 입북은 김일성이 후보중에게 요청한 결과였다.⁴⁷⁾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주덕의 제6호⁴⁸⁾ 정신이고, 강신태와 이익선이 이를 실천에 옮겼다.⁴⁹⁾ 의용군 제5지대 지대장 이익선은 강신태처럼 해방 이후 연안에 들어와 “조선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 군대에 들어가야” 함을 강조하면서 조선인 청년을 군에 모집했다.⁵⁰⁾ 그리고 군정대학 1개 영을 강신태와 함께 이끌고 북한에 들어왔다. 또한 당시 국경은 소련군대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조가 필요하였다.⁵¹⁾ 결국 1946년 입북은 김일성의 권력 장악과 항일연군 출신 지휘관에 의한 부대편성, 중공의 주덕 6호 명령과 소련의 승인이라는 산물 때문에 가능하였다.

1946년에 이어서 1949년 7월에는 2개 사단이 입북하게 된다. 1949년 7월 입북 배경은 남한의 북침 가능성 때문이었다.⁵²⁾ 1949년 5월 15일 주북한 소련대사 슈티코프가 소련 외무상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의 내용을 보면⁵³⁾, 입북은 김일성의 요청에 마오쩌둥의 승인으로 이루어졌

44) 김중생, 앞의 책, 140-141쪽.

45) 위의 책, 141쪽.

46)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15권 3호(2012) 참조.

47) 정현수 외, 앞의 책, 300쪽.

48) 당시 주덕 총사령관의 제6호 명령은 “너 조선족들은 빠른 기일 내로 동북에 진중해 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확군하고 이래서 부대를 걸고(끌고) 조선 혁명을 위해서 조선으로 나가라”였으며, 그 명령의 본색은 조선에 나가서 조선을 해방하기 위해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정현수 외, 앞의 책, 332쪽.

49) 위의 책, 289쪽.

50) 위의 책, 284쪽.

51) 위의 책, 299쪽.

52) 이재훈, 앞의 논문, 174-178쪽.

53) “김일이 [...]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사단들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 중국에 파견되었다. 김일은 유사시 인민해방군 소속 조선인사단들을 조선정부에 넘겨줄 것을 요청하

다. 그리고 북한 김일성의 부대 요청은 국토완정을 위한 군사력 강화의 측면 때문이었다.⁵⁴⁾ 이를 위해 김일성은 스탈린으로 하여금 이승만의 6월 북침 정보를 제공하면서, 북한은 3개 사단, 남한은 8개 사단이라는 수적 차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무기지원과 중국 조선인 사단의 입북을 요청하였다.⁵⁵⁾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 4월 17일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에 잘 나타나 있다.⁵⁶⁾ 소련은 4월 중순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을 상당히 우려하게 되었고, 스탈린의 4월 17일자 지령인 남한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 “북한의 군대와 경비대를 증강하여 경계심을 강화”토록 하였다.⁵⁷⁾ 또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4월 28일 김일(金一)을 통해 조선인 부대의 인도를 요청한 것이다. 결국 스탈린의 입장은 남한의 대규모 침공 가능성에 대한 위기 대응책이었다. 반면 중국의 조선인 부대 입북 결정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것과 더불어 국공 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에 따른 감군조치 일환으로 심양과 장춘에서 위수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전투력이 취약한’ 조선인 부대를 북한에 인도한 것이었다.⁵⁸⁾ 요컨대, 1949년 7월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국토완정을 위한 북한의 군사력 강화와 남한의 6월 북침에 대한 스탈린의 위기의식, 그리고 마오쩌둥의 군내 감군조치의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 성과물이었다. 또한 당시 입북하는 2개의 사단은 잉여군사력으로 중국공산당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군사력이 아니었다.⁵⁹⁾

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서한을 마오쩌둥에게 전달했다.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 소속 3개 조선인 사단 중에서 2개 사단은 심양과 장춘에 주둔해 있고, 1개 사단은 공격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마오쩌둥은 만주에 주둔해 있는 2개 조선인사단을 완전무장한 상태로 언제든지 조선정부에 넘겨줄 준비가 되어 있다. 세 번째 사단의 경우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남쪽에서 돌려보낼 수 있다 [...] 고 말했다.” 이재훈, 앞의 논문, 174-175쪽; 김중생, 앞의 책, 142쪽.

54) 염인호,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북한입국」,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1), 166쪽;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나남, 1996), 102쪽.

55) 김중생, 앞의 책, 220-221쪽.

56) “남조선은 4월과 5월에 군대를 38선 지역에 집중시키고 6월에 북쪽을 기습공격하여 8월 안에 북조선군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한다. 이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우리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비신스키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암호전문, 1949. 4. 17). A. V. 토르쿠노프, 구중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에디터, 2003), 45-46쪽 참조.

57) 스탈린에게 보내는 슈티코프의 전보(1949. 5. 2). A. V. 토르쿠노프, 구중서 역, 위의 책, 52쪽.

58) 슈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암호전문(1950. 1. 11). 이재훈, 앞의 논문, 180쪽.

59) 이 부대의 훈련 정도와 잉여군사력 여부는 3장에서 살펴본다.

표1-시기별 입북 배경

입북 부대	북한	중공	소련
1946년 훈춘보안대	* 김일성의 권력 장악 - 항일연군 출신 지휘관 - 군사력 건설	- 주덕6호의 정신	- 북한의 체제 수립 (민주기지 건설)
1949년 2개 사단	* 군사력 강화 (국토완정)	- 감군 조치 (잉여군사력 처리)	* 남한의 북침 억제 (스탈린의 위기의식)
1950년 1개 사단, 1개 연대	- 군사력 강화 (국토완정)	* 감군 조치 (잉여군사력 처리)	- 중국의 적극적 개입 지지

*: 직접적 배경, -: 간접적 배경

1950년 4월, 1개 사단과 1개 연대급 부대가 또다시 입북하게 되었다. 당시 입북 배경은 중국의 군사력 감축 때문이었다.⁶⁰⁾ 1950년 입북은 북한이 아닌 중공이 먼저 인도 의향을 북한에 통고했고,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며 이루어졌다. 1949년 12월 29일 중공 중앙군사위원회는 마오쩌둥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인 부대 인도에 대한 동의를 구했으며, 마오쩌둥은 이를 스탈린에게 알렸다.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논의로 입북이 허용되고, 북한은 조선인 부대 주둔의 어려움 때문에 이 부대를 4월 이후 데려오게 된다.⁶¹⁾ 결국 1950년 입북은 중국의 감군조치와 스탈린의 중국에 대한 적극적 개입지지⁶²⁾, 그리고 김일성의 군사력 강화책이 맞물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III. 입북 부대의 전투 활동과 교육

염인호는 1945년 해방 이전 만주 조선인 부대가 전투 경험이 없는 정치공작대의 위상을 지님을 밝혀냈다.⁶³⁾ 하지만 무정에 의한 사령부

60) 이재훈, 앞의 논문, 180쪽.

61) “김일성은 이 부대를 조선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말했다. 금명간 조선인들은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명의 대표단을 중국으로 보낼 것이다. 김일성의 의향: 1.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민군에 속해 있는 조선인들로 1개 보병사단과 2개 보병연대를 조직하고, 나머지 장교와 병사들로는 1개 모터사이클연대와 1개 기계화여단을 조직한다. 2. 김일성은 주둔의 어려움으로 인해 1개 사단과 2개 연대가 1950년 4월까지 중국에 주둔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요청하려고 한다.”(슈티코프가 모스크바에 보낸 암호전문, 1950. 1. 11). 이재훈, 위의 논문, 187쪽.

62) 이재훈은 스탈린이 아시아에 대한 주도권을 중국에 양도하면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을 보다 깊숙이 개입시키고자 마오쩌둥의 의견을 수용하였다고 보았다. 위의 논문, 188-189쪽.

63)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 제7, 8장 참조; 염인호, 『조선의용대·

설치 및 군정대학 설립과 간부교육이 진행된 1946년 이후에는 국민당 부대와 정규전을 수행하는 정규전 부대로 그 위상이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입북 부대의 전투 활동과 교육의 실상에 대해 194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1945년 이전 비정규전과 간부교육

해방 이전 만주 조선인 부대의 전장 경험과 전투력을 살펴보기 위해 당시 만주의 주요 부대였던 조선의용군과 항일연군의 활동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다. 조선의용군과 항일연군은 많은 공통점을 지닌다. 같은 민족 이면서 이데올로기, 투쟁 강령 및 방식, 무장투쟁화 과정, 그리고 용어 사용 등 중국 내 동일한 학습 경험을 공유하였다.⁶⁴⁾ 동북항일연군은 1930년대 만주 지역에서 일제의 대토벌에 의해 소멸되었고 조선의용군은 1940년대에 그 지속성을 계승하였다는 차이점은 있지만, 중국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무장투쟁이라는 경험 때문에 두 부대 모두 중국공산당 노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⁶⁵⁾

먼저 조선의용군의 연혁과 전투 활동을 개관해보면, 조선의용군의 전신인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무한에서 조선민족혁명당 총서기인 김원봉에 의해 창설되었다.⁶⁶⁾ 이는 1937년 11월 12일 조선민족혁명당이 주가 되어 결성된 ‘조선민족전선선련맹’의 주요 사업방침인 ‘조선인 항일 무장대오 건립’의 산물이었다.⁶⁷⁾ 당시 조선의용대는 200명 이내의 소수인원이었지만 군관학교 출신의 혁명간부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1940년대 조선의용대는 일본군과 정규전을 수행하는 전투 부대가 아닌 정치선전공작대였다.⁶⁸⁾ 1940년 이전까지 ‘적대선전’과 ‘적군의 와해 공작’이 주요 임무였고, 이를 위해 철도와 신작로에 대한 기습·매복·기습 등의 유격전을 구사하였다.⁶⁹⁾ 이는 항일연군도 유사하다. 동북항일연

조선의용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제6장, 281-327쪽.

64) 정병일, 앞의 논문, 284-285쪽.

65) 위의 논문, 295쪽.

66) 최강, 앞의 책, 10-11쪽;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제43(2007), 271쪽에서 재인용.

67) 최강, 위의 책, 11-15쪽.

68) 김주용, 앞의 논문, 277쪽.

69) 최강, 앞의 책, 33쪽, 42-43쪽.

표2-2개 군대의 비교

구분	조선의용대	동북항일연군
자주성 (독자성)	중국군사위원회 지휘 화북지대-중국공산당 지휘	만주성위 지휘(제약적)
군(대)민관계	선전 활동(활발)	긴밀함(농민 계층 대상)
전투력(조직)	정치선전 부대-전투 부대 성격 담보	많은 유격전을 통해 개인적 전투 능력 제고
전략, 전술	전면전	유격전
위상	중국 군사위원회의 또는 중국공산당의 지휘 아래에 이중적 임무를 담당	동북지방 대표적 항일단체

* 출처: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표 참조

군의 모태인 동북인민혁명군이 1930년 5·30봉기를 겪으며 조직되었고, 1933년 만주국의 탄압으로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사가 성립되었다. 동북항일연군은 만주국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전투 및 선전 활동에 주력하였다. 예컨대 이흥광 지대는 열차 습격이나 헌병대 공격 등 비정규 전과 만주국의 탄압과 군사적 봉쇄로 인해 평북 후창군 동홍읍 기습 등의 직접 전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⁷⁰⁾ 하지만 1937년 김일성의 보천보 습격 사건 역시 북한의 주장처럼 항일무장투쟁사상 최초, 최대의 승리가 아닌 일반적인 사격전과 선전 활동(전단 10여 매)의 일환이었다.⁷¹⁾ 즉, 동북항일연군 역시 단지 유격대 수준의 전투였던 것이다.

1930년대 무장 단체의 주요 사업은 간부교육이었다. 1930년대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은 군사정치간부 혁명학교를 세웠고, 이후 군관학교 독립중대로 이어졌다.⁷²⁾ 이 외에도 국민당의 중앙군관학교와 공산당이 수립한 연안의 항일군정대학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민족혁명당 간부학교, 국민당 군관학교, 연안 항일군정대학 졸업생, 그리고 항일연군과 연계된 모스크바 동방대학 졸업생들⁷³⁾은 각급 부대의 고급 장교가 되었다. 또한 1941년 이후 설립된 태행산과 기타 항일근거지의 조선의용군 간부학교, 교도대대 육군중학 등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 졸업생들은 초급 장교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가 불리한 상황에서 간부교육

70) 김주용, 앞의 논문, 278쪽.

71) 이상조·이기봉 편저, 『전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증언』(원일정보, 1989), 35-43쪽.

72) 김중생, 앞의 책, 229쪽.

73) 모스크바 동방대학은 아시아 국가의 공산당 간부 훈련 목적으로 레닌의 발의로 모스크바에 설립되었다. 방호산·주덕해·이권무·전우·주춘길·장복·이림·유경룡 등이 항일연군 중에서 우수한 자로 선발되었다. 김중생, 위의 책, 229-230쪽.

은 항일투쟁을 위한 기본적인 수준과 내용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1938년에 마오쩌둥은 정규전 부대의 창설을 언급하였고 만주 지역에서도 1940년대에 정규전 부대를 창설하고자 노력하였다. 조선의용대도 1940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 간부 확대회의’를 통해 팔로군 항일근거지로 이동하였다. 조선의용대는 태항산의 팔로군 항일근거지에서 포병탄장 무정⁷⁴⁾이 창건한 화북조선청년연합회와 결합하게 되고⁷⁵⁾, 이후 1942년 평터화이의 의견에 따라 조선독립동맹(김두봉 위원장)과 화북조선의용군이 통합된 군정연합 통일체가 된다.⁷⁶⁾ 조선의용군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간부 양성과 훈련은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었다. 1941년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공작 준비 기간을 가진 이후에 간도(干都)훈련반 훈련이 이루어졌다. 당시 훈련은 2개월(8월 15일-10월 18일)로 조선 문제[교관: 석정(石正)], 정치 문제[교관: 최창익(崔昌益)], 시사 문제[교관: 김학무(金學武)], 전범령(典範令)[교관: 박효삼(朴孝三)] 등을 다루었으며, 군사훈련은 분대 수준에 머물렀으며⁷⁷⁾, 훈련 이후에도 무장 선전공작 활동에 머물렀다. 또한 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총부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군정학교인 ‘화북 조선간부훈련반’(이후 ‘화북조선청년혁명학교’, 1944년 ‘화북조선혁명군사학교’)을 설립하였고, 초대에는 김두봉이, 1944년 이후에는 무정이 역임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 결과 해방 직전 독립동맹 가입자는 2,000여 명이고, 조선의용군은 800여 명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당시 군정학교의 교육 수준은 상당히 미비하였고 무장 선전공작이 주요 훈련 내용이었다.

교육의 미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용군은 1942년 화북조선독립동맹이 만들어지면서 그 산하 무장조직으로 개편되었고, 1942년 5월에 태항산 마전에서 일본군 포위작전에 대한 반소탕전과 호가장 전투 등 수많은 전투에서 활약하였다.⁷⁸⁾ 이 외에도 1941년 7월부터 1942년 8월까지

74) 무정은 1924년 보정군관학교 포병학교를 졸업하고 남구전투에 참전한 공으로 포병 대위가 되었다. 1939년 10월 팽덕회와 장정에 올랐으며, 연안 홍군대학 특과영장으로 포병을 양성하였다. 또한 팔로군 포병대학 초대 교장 겸 포병탄 탄장이기도 하다. 최강, 앞의 책, 82-83쪽.

75) 위의 책, 53-57쪽.

76) 김중생, 앞의 책, 43-45쪽; 최강, 앞의 책, 89쪽.

77)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총결』(1943).

78) 호가장 전투는 팔로군 유격근거지인 호가장에 대한 일본군의 포위를 돌파한 전투이며, 반소탕 전투는 황포군관학교 출신인 박효삼이 동쪽 고지를 견제한 틈을 이용하여 팔로군의 탈출을 보장한 전투이다. 최강, 앞의 책, 90-96쪽.

약 3만여 장의 전단 살포와 4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전투에 참전하였다.⁷⁹⁾ 하지만 당시 전투는 일본군과의 정규전이기보다는 일본의 토벌작전에 대응하는 비정규전이였다. 당시 조선의용군의 항일투쟁은 대일유격전과 정치공세, 생산운동, 지하투쟁(적국에 대한 지하사업), 간부 양성이었기 때문이다.⁸⁰⁾ 단적으로 1945년 5월 중공 제7차 대회에 독립동맹을 대표해 참석한 박일우는 아직까지 전투 부대가 편성되지 못했음을 시인하였다.⁸¹⁾ 이후에도 1944년에 독립동맹(주석 김두봉)과 조선의용군(지대장 박효삼, 1945년 7월 이후 사령 무정)은 강력한 전투 부대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⁸²⁾ 이는 1944년 10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 강점기 말기 광복군을 강화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대일전쟁에 참전하고자 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였다.⁸³⁾ 그런데 해방 후 조선의용군 부대는 1946년 초 연대급 정규전 부대를 치를 정도로 성장하였다고 평가된다.⁸⁴⁾ 과연 만주 조선인 부대가 해방 이후 얼마만큼 정규전 교육을 받게 되었는지 살펴보자.

2. 1945년 이후 국공내전의 전장 경험과 간부교육

연안의 조선군정학교는 1945년 2월 5일 정식으로 개교하였으며⁸⁵⁾, 태항산의 조선군정학교는 1945년 3월 1일에 정식으로 개교하였다. 또 항일군정대학 제5분교에 조선인을 위한 특별훈련반(11대)에 수용되기도 하였다. 특히 연안의 군정학교는 조선독립동맹과 의용군의 총교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조선혁명 이론, 그리고 군사지휘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규화된 학교였다. 당시 군사과목은 중대전술이 중점이었으며,

79) 위의 책, 102쪽.

80) 위의 책, 124-150쪽.

81) 염인호, 앞의 책(2001), 347쪽.

82) 당시 구성인원은 공산당원(무정, 박일우, 서휘, 정률성), 조선민족혁명당(김두봉, 박효삼, 리춘양, 양민산), 조선청년전위동맹(최창익, 한빈, 허정숙, 리유민), 항일연군 및 소련 동방대학(주춘길, 주덕해, 방호산, 권무, 리득산, 전우, 왕전, 장복, 진반수), 그의 애국청년으로 구성되었다. 최강, 앞의 책, 119쪽.

83) 염인호, 앞의 책(2001), 285쪽.

84) 위의 책, 286쪽.

85) 연안의 조선군정학교는 코민테른 결정에 따라 세워졌으며 중공 군사위원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 있었다고 한다. 강창록·김영순, 『주덕해-중국 조선족의 큰 별, 잊혀진 혁명가의 초상』(실천문화사, 1992), 119쪽; 염인호, 앞의 책, 294쪽에서 재인용.

정치과목은 조선군대사, 조선혁명문제, 신민주주의론 등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⁸⁶⁾ 이와 같이 1945년경이 되어서야 조선의용군은 정규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 간부 양성에 착수할 수 있었다.⁸⁷⁾ 정식으로 개교했지만 연안이나 태항산의 군정학교 대원들처럼 군사정치훈련을 받으면서 생산운동에 참여해야 했다.⁸⁸⁾ 자료가 남아 있는 태항산 군정학교의 교육 자료에 의하면 교육은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고급반·중급반·저급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⁸⁹⁾ 또한 각급 군정학교는 박일우, 무정 등 조선인 중공 고급 간부들이 주도하였고, 이들을 통하여 중공의 노선이 실천되었다.⁹⁰⁾ 군정학교에서 교육받은 인원은 약 850명 내외였다.⁹¹⁾ 그리고 이 인원들이 향후 조선의용군 제1, 3, 5지대의 골간 역량이 되었다.⁹²⁾

또한 북만특위의 만주기지론을 위해 청년을 중핵으로 하며, 청년을 혁명 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간도에 고급 군사정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비록 독립동맹이나 조선의용군이 혁명을 주도하지 못했지만, 제5지대에는 중공의 항일군정대학을 모델로 한 조양천 교도대를, 제7지

86) 군사과목은 중국항일전쟁의 전략인 지구전과 대렬기본훈련(대형), 내무조례, 사격과 병기학, 지형학과 공사구축, 분대-중대전술이고, 정치과목은 조선군대사, 조선혁명문제, 신민주주의론, (중국과의)연합정부를 포함, 철학, 쓰련공산당사, 레닌주의 기초, 사회과학, 정치경제학 등이다. 최강, 앞의 책, 157쪽.

87) 염인호, 앞의 책(2001), 290-292쪽.

88) 위의 책, 295쪽.

89) 수준별 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고급반은 중학 혹은 대학 정도의 수준을 지닌 사람이 군사 60%, 정치 40%로 교육받았다(군사과목은 대렬기본동작, 내무규정, 초병근무, 분대-대대 전술, 사격기본동작, 전투사격, 기본 보병 무기 원리 및 그 보관, 기관총·수류탄·지뢰의 원리와 사용상식, 지형지물 이용과 판단, 진지구축, 旗號통신, 전화통신 사용 방법, 군대의 관리 및 교육, 야간 긴급집합과 야간순격 등이었고, 정치과목은 시사, 사회발전사, 신민주주의론, 조선혁명운동사, 정치경제학, 철학, 군대 중의 정치공작 등이었다. 무정의 “화북조선독립동맹 1944년 1월-1945년 5월 공작보고” 중의 ‘교육 공작’에 의함. 최강, 앞의 책, 159쪽). 군사과목의 경우 기본적인 전투 기술로부터 대대 전술까지 교육받았으며, 정치과목의 경우 조선혁명사와 함께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론을 교육받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소학교 졸업 정도의 중급반의 경우 군사보다는 정치학습에 비중을 두었으며, 중대 전술까지 교육되었다. 반면 소학교 졸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급반의 경우에는 정치·군사 과목 외에 문화과목을 신설하였으며, 정치 40%, 군사 10%, 문화 50%로 배분하고 분대 전술까지 교육하였다. 염인호, 앞의 책(2001), 297-298쪽.

90) 위의 책, 301쪽.

91) 위의 책, 325쪽.

92) 예를 들어, 제166사단의 경우 탄 간부의 30여 명 중 산동분교 2명, 태항산 5명, 연안 15명이었다. 최강, 앞의 책, 162쪽.

대에는 조선혁명군정학교를, 그리고 연변에는 동북군정대학 길림분교를 정식 창설되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이후 중국혁명뿐만 아니라 6·25전쟁 시 주요 간부로 활약하게 된다.⁹³⁾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연안 충교를 포함한 태항산, 산동분교, 신사군의 분교 모두 중국의 항일군정대학의 영향력을 받았으며, 특히 ‘신민주주의론’과 ‘련합정부를 논함’은 필독으로 이루어졌다.⁹⁴⁾ 또한 정규전에 대한 군사교육에는 일부 대대전술훈련도 진행되었지만, 중대전술훈련이 중점이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 내용과 수준을 바탕으로 당시 간부학교였던 조양천 교도대를 졸업하고 6·25전쟁 시 주요 간부로 활약한 장한철의 사례를 통해 실제 북한군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 단면을 보고자 한다. 장한철은 군정대학에서 인류의 사회발전사, 계급 등의 정치교육과 각개동작, 중대 및 소대 동작, 무기 운용 등 군사교육을 받았다.⁹⁵⁾ 교육 수료 이후 1946년 7월 주보중의 명령으로 강신태, 이익선 등과 함께 약 300여 명이 입북하게 된다. 1946년 8월 초 임시인민위원회 각종 법규에 대한 교육을 받고 훈춘 보안탄에서 온 300여 명과 합하여 약 600여 명이 신의주, 평양, 나남 등 세 군대로 배치받았다.⁹⁶⁾ 제2조 제4분소(회령)에 배치받은 장한철은 그곳에서 소대장 및 중대장 임무를 수행하였다. 당시 중대 훈련 시 “우리는 소련식이 아니고 중국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장한철은 제2군관학교(1947년 8월-1948년 8월)에서 “정치로부터 시작해서 군사 모두 다 소련식”으로 교육받게 된다.⁹⁷⁾ 즉, 북한은 당시 중국식 교육을 받은 초급간부들은 간부 재교육을 통해 통일된 교리로 육성하였던 것이다.⁹⁸⁾ 그리고 참모학교에서 5, 6개월 교육 이후 1949년 5월경부터 제2사단 제2연대 작전참모를 하다가 참전하였다. 그는 군정대학 출신이지만 중국에서는 토비 숙청 외에 실전 경험이 없었으며⁹⁹⁾, 만주에서의 교육을 그대로 활용하지

93) 염인호, 앞의 책(2010), 427쪽, 431쪽.

94) 최강, 앞의 책, 162-164쪽.

95) 정현수 외, 앞의 책, 201-203쪽.

96) 위의 책, 204-205쪽.

97) 위의 책, 206-208쪽. 교육 내용으로는 “제식, 체육, 창벽, 전술 모두 다 소련식인 한 것을 배웠어요. 정치는 소련공산당 볼셰비키 당사를 배우고, 그다음에 국내혁명, 그래서 지형학, 전술학 이런 거는 다 소련식이죠.”(위의 책, 208-209쪽).

98) 위의 책, 293쪽.

99) 위의 책, 312쪽.

못하고 북한 내 군사 간부교육을 통해 소련식 정규전 교리를 수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3. 입북 부대별 전장 경험과 전투 분석

1950년 11월 7일 심양에서 조선의용군 군인대회(당시 4,000여 명)가 개최되었다. 대회에서 사령관 무정은 조선의용군을 제1, 3, 5지대로 나누었다.¹⁰⁰⁾ 염인호는 이와 같은 심양에서의 조선의용군 재편성과 1946년 이후 국공내전 정규전 경험 때문에 조선의용군이 정규전 부대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각 지대별 국공내전 시 활동과 전쟁 초기 전투 양상을 살펴보자.

남만 제1지대의 주 임무는 정규작전이기보다는 토비숙청, 근거지 건설, 확군, 건맹사업, 대중사업이었다.¹⁰¹⁾ 결국 점령정책, 안정화 작전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소수 폭도들이 의용군 사령부를 습격함에 따라 이를 평정하는 수준의 작전이었다.¹⁰²⁾ 제1지대는 리홍광 지대, 그리고 독립4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1948년 휘남현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국민당 정규군과 싸워 진지공격전에서 승리하게 된다.¹⁰³⁾ 이후 독립4사는 166사단(1948. 11)으로 심양위수사업 도중 입북하여 북한군 제6사단이 된다. 제6사단은 1949년 10월 황해도에 분산 배치되어 소련 무기로 소련군의 교범대로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편제보다 많은 초급장교와 하사관은 군관학교 등 군사교육기관에 선발 파견되었다.¹⁰⁴⁾ 결국 제6사단은 국공내전 시 경험 이외에도 입북 이후 북한에서 소련식 정규전 교리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완성하였다.

입북 부대로서 제6사단의 전적은 과대평가되어왔다. 특히 이는 제6사단의 미산 진출이 유엔군으로 하여금 전략적 위기를 조성하였기 때문이었다.¹⁰⁵⁾ 하지만 제6사단의 전투 경과를 살펴보면 우회기동 외에는 전면전

100) 서명훈, 「조선의용군 3지대의 탄생과 활동」, 『조선의용군 3지대』(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1987), 5쪽.

101) 최강, 앞의 책, 215-216쪽.

102) 위의 책, 239-240쪽.

103) 위의 책, 260쪽.

104) 김중생, 앞의 책, 175쪽.

105) 제6사단의 호남평야 대우회작전은 보병의 현대적인 운송장비가 전무한 조건에서 포병의 견인차를 활용하면서 기동력과 과감한 지역 점령을 결합한 북한군 부대의 뛰어난

에서의 성과보다 몇 가지 실책이 발견된다. 먼저 주력 부대인 제15연대의 김포 우회지점의 지연이다. 이 부대의 초기 전투 임무는 한강과 임진강의 합류지점을 도하하여 강화도를 점령하고 김포반도로 진출하여 한강도하 작전을 엄호하고 인천 점령과 서울 서부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¹⁰⁶⁾ 제6사단은 김포 일대를 장악했지만 후속 부대의 미도착으로 영등포 진격이 지연되었으며, 한강 하류 도하를 위해 북한군의 독립공병연대가 보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교대대 장비의 절반이 배속되었으나 당시 도선판과 소형 보트를 이용한 도하 속도는 지지부진했다.¹⁰⁷⁾ 사단 전체의 장비와 병력을 도하하는 데 무려 5일이 소요되었다.¹⁰⁸⁾ 도선판 등의 장비 없이 영산 일대에서 강행도하에 성공한 제3사단과 비교된다. 당시 미 공군의 참전이 없었고 공병의 도하장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강화도까지 쉽게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5연대는 김포반도에서 국군의 저항으로 진출이 지연되어 한강 남북 배합작전이 실패한 것이다. 특히 당시 국군의 김포사령부는 긴급 재편된 부대였음에도 이를 공격하던 제15연대 대대장이 사망하였다. 마산 진출 간에도 1개 연대의 2개 대대가 거의 전멸되었다. 결국 정규전으로서의 전투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북만의 제3지대 역시 폭동진압, 토지개혁, 군수임무(탄약운송), 간부 양성 및 선전문화사업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제3지대는 독립11사, 그리고 제164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큰 정규전 없이 장춘시 위수임무를 맡게 된다. 장춘전투는 적의 거점을 봉쇄하는 포위전이이었으므로 10월 중순까지 ‘전투다운 전투’는 없었다.¹⁰⁹⁾ 그리고 당시 독립 11사단의 주요 임무는 정규전이 아니라 적군 귀순공작, 난민에 대한 공작, 그리고 농촌

작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우회기동의 가능성은 피아 식별의 곤란성에 기인한다. 군산 주요 교차점 점령 시 “국방군과 인민군의 구분이 힘들었다. [...] 국방군으로 보고 자신들의 편인 것처럼 인사”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는 인민위원회가 복구되면서 진출이 용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제6사단은 지휘연락이 불량하고 보포 협동작전 능력과 병참 부대의 부족으로 우회포위를 달성할 수 없었다. 김중생, 앞의 책, 204쪽; 정현수 외, 앞의 책, 188-189쪽.

106) 김중생, 앞의 책, 202쪽.

107)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8), 155쪽.

108) 백종윤 중위 포로진술, FEC, ADVATIS-1174(17 Oct 50). 김광수, 위의 논문, 156쪽에서 재인용.

109) 엽인호, 앞의 책(2010), 445-448쪽.

일손 지원 등의 생산 활동이었다.¹¹⁰⁾ 이로 인해 정규전 수행을 위해서 입북 직전부터 예비훈련 및 편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장춘 위수 활동 간 제164사단은 사격, 총검술 및 백병전, 투탄, 폭과, 교통호 구축 등의 훈련으로 건군 이래 부족한 훈련을 보충하였다.¹¹¹⁾ 또한 부대는 중국인 간부가 대대장급은 50%, 연대장 이상은 70%였으므로 이를 위한 포병조직과 병력 보충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¹¹²⁾ 이런 이유 때문에 7월 말에 신병 1,577명이 도착하였고 포병연대와 공병대대가 새로 창설되었으며, 돌격훈련과 폭과훈련, 특종화기훈련과 전술훈련이 이루어졌다.¹¹³⁾ 이렇듯 입북 후 제5사단은 만주 전투 경험과 정규전 수행을 위한 훈련이 부족하였다. 오히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입북 이후 정규전 수행을 위해 새롭게 조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제5사단은 부수적인 동해안 전선에 투입되었고, 그럼에도 큰 전투 성과는 없었던 것이다.

동만의 제5지대는 15탄과 16탄으로 나뉘는데, 15탄은 독립6사단과 제156사단으로 명칭이 변화되었으며, 주요 작전으로는 장강 도하작전과 남창 위수 임무가 있었다. 그리고 제16탄은 토비숙청, 제1차 장춘해방전투, 추격작전 및 우회전술, 사령전역 개원전투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¹¹⁴⁾ 1948년 1월 오마둔에서 독립6사단 16연대는 길림선과 연결선 철도 전투에서 전과를 달성하지만, 이후 국민당 군대와 조우전에서 530여 명이 희생되기도 하였다.¹¹⁵⁾ 이후 독립6사단은 장춘전투에 참전하지만 포위 부대였기에 큰 전투는 없었다.¹¹⁶⁾ 그럼에도 제156사단은 “싸움을 무척 잘했는데 조선 부대”였다고 한다. 또한 해방 이후부터 김일성의 영향을 받은 목단강 부대는 “대대의 간부는 상당히 약”했으며 군사에 무지하였고, ‘간부 결핍’으로 조선 연대를 실현할 수 없었다.¹¹⁷⁾ 이와 같이 간부 능력이 부족했던 목단강 지구 부대가 1950년 정주에 집결하여

110) 위의 책, 448-458쪽.

111) 위의 책, 463-464쪽.

112) 김중생, 앞의 책, 146-147쪽.

113) 염인호, 앞의 책(2010), 474-478쪽.

114) 최강, 앞의 책, 313-318쪽.

115) 염인호, 「중국 국공내전기의 만주 조선인 부대에 관한 연구(1948-195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2집(2004b), 204-205쪽.

116) 염인호, 앞의 책(2010), 257쪽. 장춘포위전에 대해서는 염인호,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북한 입국: 중국인민해방군 제164사단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146-160쪽 참조.

117) 위의 책, 386-390쪽.

중남군구 독립 15사단 제3연대로 입북하여 제12사단 1개 연대가 된다.¹¹⁸⁾ 결국 제5지대의 15탄과 목단강 부대로 편성된 제12사단은 15탄의 경우 명망 높은 부대였지만 정규전 경험과 훈련은 부족하였고, 목단강 1개 연대는 전투력이 취약한 부대였다. 이후 두 달 만에 소련 무기로 교체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가져온 무기로 참전했지만, 사단 창설식에서 조선인민군 군인선서를 통해 “무조건 상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걸로 여겼고 사상을 통일했다”고 한다.¹¹⁹⁾ 즉, 사단 장병들은 맹세를 통해 북한의 국민이 되면서 김일성의 영향력하에 있게 되었다.¹²⁰⁾ 제12사단 역시 초기 흥천전투에서의 패배로 사단장 전우가 해임되었다. 그 이후 죽령 부근에서 많은 병력이 손실되었으며¹²¹⁾, 김일성은 7월 16일 각 부대의 진격을 독려할 때에도 제12사단의 작전을 못마땅해하였다.¹²²⁾ 안동 1차 공격도 실패해 제31연대장이 면직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12사단의 경우에도 안동전투 외에 승리한 전과는 없었다.

입북 부대로서 전투력이 강한 부대는 제4사단 제18연대였다. 중국의 요심전 역시 흑룡강부대 소속이었던(제4야전군 47군 10중대 141사 421탄 3련) 염관일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 3월 명령에 의거하여 정주에서 신의주로 이동하여 1950년 4월 28일 북한군(제4사단 18연대)으로 개편되었다.¹²³⁾ 제12사단과 비슷한 상황으로 중국에서 가져온 미군과 일본군 무기로 전쟁에 참가하였다. 만주 조선인 부대 중 제일 많이 전투에 참가했고, 전쟁과정에서 북한군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부대로 입증되었다. 동두천에서 국군 7사단의 방어진지 돌파, 6월 28일 서울 중앙청 점령, 오산 스미스대대 격파, 대전 점령작전 승리, 추풍령 부근 미군보급기지 습격 등의 전적이 있었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인원손실의 누적으로 전투 한계점에 이르게 된다.¹²⁴⁾ 이렇듯 제4사단 18연대는 다른 입북

118) 연대장은 황동화(김동규)다. 김중생, 앞의 책, 114쪽; 염인호, 앞의 책(2010), 392쪽.

119) 정현수 외, 앞의 책, 144쪽.

120) 염인호, 「6·25전쟁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28집(2004a), 324-325쪽.

121) 7월 14일 제12사단 1개 연대는 승리를 낙관하고 방심한 채 죽령고개에서 풍기를 향해 내려오다가 국군 제8사단의 매복 공격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약 3일간 정지하게 된다. 김광수, 앞의 논문, 196쪽.

122) 위의 논문, 201쪽; 김일성, 「대전해방작전을 성과적으로 진행하며 전선연합부대들의 남진속도를 더욱 높일 데 대하여」(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한 연설, 1950. 7. 16), 『김일성전집』 제12권, 143-144쪽.

123) 정현수 외, 앞의 책, 86-89쪽.

부대와는 다르게 전술적인 승리를 얻어내는 전투력이 강한 부대였다.

지금까지 조선의용군 부대의 각 지대의 전투 경험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일부 부대가 국민당과의 정규 전투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부대는 폭동진압과 토비숙청, 그리고 위수임무 등의 비정규전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규전 수행을 위한 훈련도 부족하였다. 당시 조선의용군의 훈련 부족은 각종 회고록과 중공의 판단에서도 나타난다. 한 회고록에 의하면 만경대 군관학교에서의 “유격대 작풍”에 비판을 받은 리복룡은 “정작 군대 가서 생활해보니까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만주에서 “군대에 참가해서 싸움만 했지, 이런 훈련을 받아본 적 없지. 그러니까 의용군 못한다고 욕하지” 하면서 정규군 훈련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¹²⁵⁾ 또한 훈련에 대한 미흡은 왜 중국공산당이 1948년에 들어와 조선 사단인 독립6사단과 독립11사단을 창설하면서 완전히 조선인들로만 구성하지 않고 사단-대대의 책임자 대부분을 중국인으로 구성하였는지를 통해 엿출해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중국공산당이 조선인 간부의 지휘 능력을 불신하였고, 조선인 부대에 대한 통제, 연변 문제 해결의 어려움 때문이었다.¹²⁶⁾ 북한 공간사에서 “전선동부에서 행동하는 연합 부대들은 적을 정면으로만 밀고 나가지 말고 산길을 따라 대담하게 우회기동하여 익측과 후방으로부터 타격함으로써 적의 유생력량을 포위소멸하고 방어를 와해시키며 공격속도를 높여야 한다”고¹²⁷⁾ 언급할 만큼 동부전선의 제5, 12사단의 전투 역량은 부족하였다. 결국 입북 부대의 정규전 훈련과 전투 경험은 부족했던 것이다. 1949년 5월 마오쩌둥은 2개 사단의 입북 약속시 조선인 사단들은 “정규군이 아니며 군사적 견지에서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 사단을 지휘할 장교들을 훈련시킬 것을 권고”했다.¹²⁸⁾ 이렇듯 입북 부대일지라도 국공내전에 의한 전투 경험이 정규전 수행을 위한 전투력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124) 김중생, 앞의 책, 193-194쪽.

125) 정현수 외, 앞의 책, 46쪽.

126) 염인호, 앞의 논문(2004b), 209-210쪽 각주 37 참조.

127)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동경: 사회과학출판사, 1972), 215쪽.

128) 에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지음, 김광린 옮김,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 전쟁의 전말』(도성출판 열림, 1988), 57쪽; 염인호, 앞의 책(2010), 442쪽.

I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만주 조선인 부대의 입북에 대한 중공, 북한, 그리고 소련의 입장과 당시 부대에 속해 있던 조선인들의 생각을 통해 왜 입북하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만주 지역 주민들이 겪는 영향력을 통해 그 입북의 성격을 파헤치고자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입북 부대에 대해 과대평가된 그들의 전투력에 대한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 1930년대 이래 그들의 전장 경험과 정규전에 대한 훈련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몇 가지 특징과 의미를 제시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만주 지역 일대 정세 변화에 따른 김일성의 영향력이다. 만주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김일성뿐만 아니라 마오쩌둥, 장제스, 그리고 스탈린 등 주요 지도자들은 만주의 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만주 지역을 제일 먼저 점령한 부대는 소련군이었고, 한반도 북부의 모습과 유사하게 항일연군은 위수부 사령부를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항일연군 출신인 강신태, 김광협, 후보중을 통해 만주 지역 무장 단체 및 시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특히 북한 지역이 안정화되고 김일성의 권력이 공고화되어 중공에 대한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시점인 1946년 9월부터 1947년 8월까지 김일성의 영향력은 최대점을 이루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일성의 우상화와 연변에 대한 북한 편입 시도였다. 이후 국공내전에서 중공의 승리가 굳어짐에 따라 김일성보다는 마오쩌둥의 정치, 사상적 영향력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입북 이후 북한은 북한식 정치, 사상적 교육을 통해 마오쩌둥의 영향력을 줄여나가는 북한식 군대로서 재조형되었다.

둘째, 조선인 부대의 입북은 혈맹관계나 국제주의보다는 3국(북한, 중공, 소련)의 이해관계 및 국가이익의 산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인 부대의 입북이 북중관계의 혈맹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지만 당시 중공의 판단은 잉여병력, 즉 유효하지 않은 전투력에 대한 감군조치의 일환이었다. 1949년에는 북한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은 2개의 사단이, 1950년에는 중공이 감군조치를 위한 요청으로 먼저 제의하여

1개 사단과 1개 연대가 입북하게 된다. 북한은 국토완정을 위한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였고, 소련은 북한의 국가건설과 중국의 적극적 개입을 지지하여 나타난 이해관계의 결과였다. 또한 입북 당사자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군사보안 때문에 자신이 입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이에 따른 귀환의식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과대평가되어왔던 것과는 다르게 입북 부대의 전투력은 북한의 정규사단에 비해 떨어졌다. 특히 그들의 장점인 전장 경험은 1940년대 이전 만주 지역의 항일 무장단체의 활동이었기 때문에 정규전 경험이 아닌 비정규전 활동이 주를 이루었고, 교육 역시 비정규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정규전 교육의 중요성은 1940년대부터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45년 이후 연안 총교 및 그 외 분교가 설립되면서 만주 지역 조선인들의 훈련과 교육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당시 교육훈련은 중대급 교육이었으며, 교육뿐만 아니라 생산 활동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교육 수준은 높지 않았다. 당시 교육기관을 졸업한 입북 부대 참전자들의 회고록에 의하면, 만주에서의 교육보다는 북한에서의 재교육을 통해 정규전 훈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소련식 교리로 통일되었다고 한다. 즉, 만주 조선인 부대의 간부교육 수준은 정예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북한 지역에서의 간부교육으로 정예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쟁 경험과 전투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들의 전투 성과 또한 미약했다. 1949년 입북 부대인 제5사단은 정규전 전투 경험이 지극히 부족했고, 마오쩌둥은 이를 염려할 정도였다. 비교적 전투 경험이 있던 제6사단도 입북 이후 정규전 교리에 대한 북한에서의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제6사단의 전투 경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정규전 부대와의 교전보다는 신속한 우회기동이 당시 입북 부대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하였다. 1950년 입북 부대의 경우에는 북한식 교리로 재편하지 못하고 전선에 투입되었다. 제4사단 제18연대의 전투 성과는 상당했지만, 제12사단은 초기 전투부터 안동, 안강전투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전투 성과는 없었다. 결국 입북 부대의 전투력은 짧은 시간 훈련을 받고 전장에 투입한 예비사단에 비해 높았지만, 소련식 교리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제3, 4사단에 비해 결코 우월하지 않았다. 전쟁

초기 맥아더가 전투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한 부대는 서부전선 지연전에서 도로를 따라 고속 기동하던 제3, 4사단과 제105 탱크사단이었던 것이다.

요컨대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성격에 대해 새롭게 발간된 문헌과 연구를 검토한 결과, 만주 조선인의 입북은 북중 혈맹의 산물이 아니라 각국의 이해관계의 결과였고 중공의 의도와 상관없이 감군조치가 북한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대는 만주 정세의 초기 변화 속에서 소련군 위수부와 함께 진주한 동북항일연군을 통해 김일성의 영향력을 받아 입북하였으며, 입북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치 및 군사 교육으로 북한군과 동질하게 재조형되었다. 또한 지금까지 과대평가된 그들의 전투력은 6·25전쟁 이전 그들의 전투 경험과 교육훈련이 비정규전에 대한 것으로 그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참 고 문 헌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총결』. 1943.

고재홍, 『한국전쟁의 원인. 남북 군사력 불균형』. 한국학술정보, 200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1권 전쟁의 배경과 원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광운, 『북한 정치사 연구 I』. 선인, 2003.

김주용, 「1940년대 항일무장단체의 실상: 한국광복군, 조선의용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제43, 2007.

김중생, 『조선의용군의 밀입북과 6·25전쟁』. 명지출판사, 2000.

데이빗 쉰이,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중국의 6·25전쟁 참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1.

로이 E. 애플만 저,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육군본부, 1963.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 제1권. 나남, 1996.

백학순, 「중국내전 시 북한의 중국공산당을 위한 군사원조-북한군의 파병 및 후방기지 제공」. 『한국과 국제정치』 제10권 제1호, 1994.

_____, 『북한 권력의 역사: 사상, 정체성, 구조』. 한울, 2010.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동경: 사회과학출판사, 1972.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2006.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 나남, 2001.

_____, 「해방 후 중국 동북지방 조선인 부대의 활동과 북한입국」.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제2권, 2002.

_____, 「6·25전쟁과 연변 조선인 사회의 관련성에 관한 일고찰」.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28집, 2004a.

_____, 「중국 국공내전기의 만주 조선인 부대에 관한 연구(1948-1950)」.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2집, 2004b.

_____,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_____, 『또 하나의 한국전쟁』. 역사비평사, 2010.

에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지음, 김광린 옮김,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88.

- 와다 하루키, 『한국전쟁』. 창작과 비평사, 2001.
- 이상조·이기봉 편저, 『전 북한 인민군 부총참모장 이상조-증언』. 원일정보, 1989.
- 이재훈, 「1949-50년 중국인민해방군 내 조선인 부대의 '입북'에 대한 북·중·소 3국의 입장」. 『국제정치논총』 제45집 3호, 2005.
- 이종석, 『북한-중국 관계』. 중심, 2000.
- 장성진, 「북한군 창설기 당군관계의 형성과 의미」.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 장준익, 『북한인민군대사』. 서문당, 1991.
- 정병일, 「북·중 관계에 미친 연안파의 위상 재조명: 정치·군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8집 2호, 2010.
- 정현수 외, 『중국조선족 증언으로 본 한국전쟁』. 선인, 2006.
- 최강, 『조선의용군사』. 연변인민출판사, 2006.
- 커밍스, 브루스,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2001.
- 토르쿠노프, A. V.,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에디터, 2003.
- 한재덕, 『김일성 장군 개선기』. 평양: 민주조선사, 1948.
- 휘팅, 알렌 S.,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역, 『중공군 압록강을 건너다(*China Crosses The Yalu*)』.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1989.

국 문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6·25전쟁 이전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의 성격과 전투경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 실제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북 부대에 대한 과대평가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떻게 훈련하고 싸웠으며,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 내 김일성의 영향력은 상당하였으며, 그들은 입북이후 소련식 교리로 통일되면서 전투력을 제고시켰다. 즉, 입북 부대는 만주 정세 변화에 따른 김일성의 영향력과 입북 이후 북한식 정치, 사상적 교육 그리고 소련식 정규전 교리를 통해 북한식 군대로서 재조형되었다. 또한 간부에 대한 정규전 교육은 부족하였고, 입북 부대의 경험은 비정규전에 대한 전장경험이었지만, 정규전 부대에 대한 전투경험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었다.

투고일 2012. 12. 29.

심사일 2013. 1. 30.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6·25전쟁(Korean War), 만주 조선인 입북 부대(Chosun-Manchurian troops), 김일성(Kim Il Sung), 교육(education), 전투경험(combat experience), 전투력(combat power)

